

정종진 징크스 깰까, 정하늘 첫 3연패 이룰까?

- 1 전년 그랑프리 챔프 왕중왕전 부진
- 2 역대 왕중왕전 3년 연속 우승 전무
- 3 범수도권 9년 연속 우승 여부 관심

2019년 상반기 각 등급별 최강자를 가리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경륜 왕중왕전’이 28~30일 열린다. ‘별들의 전쟁’이 펼쳐질 특선급은 그랑프리 3연패를 달성한 정종진(20기)을 비롯해 성낙송, 정하늘, 황인혁(이상 21기), 신은섭(18기) 등 슈퍼특선급이 모두 출전할 예정이다. 역대 왕중왕전 결승은 여느 대회보다 박진감 넘치는 전개 속에 이변도 많았다. 예상지 ‘경륜박사’ 박진수 팀장의 도움으로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왕중왕전 관전포인트 3가지를 소개한다.

●전년도 그랑프리 우승자의 징크스

연말 경륜 그랑프리 우승자가 다음 해 왕중왕전에서 우승하지 못하는 징크스가 이어지고 있다. 정종진은 2016년 왕중왕전 2연패에 성공한 후 연말 그랑프리까지 접수하면서 명실상부 경륜 최강자로 우뚝 섰다.

그러나 전년도 그랑프리 우승자에게 왕중왕전을 허락하지 않는 징크스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정종진은 2017년과 2018년 결승까지 진출했으나 모두 정하늘에게 우승을 내주고 각각 5착과 3착에 그쳤다. 2010년 그랑프리 우승자 송경방(13기)도 다음해 왕중왕전에서 예선 탈락했고, 2011~2012년 우승자 이명현(16기)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



경륜 왕중왕전은 아직까지 직전 연말 그랑프리 챔피언이 우승한 적 없고, 3연패를 달성한 선수도 없다. 정종진과 정하늘이 왕중왕전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왕중왕전에서 우승자 정하늘(맨앞, 4번)이 결승선 통과를 앞두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참과 준결승 7위 탈락을 경험했다. 2013년 우승자 박병하(13기)는 준결승 6위로 탈락의 쓴잔을 마셨고, 2014년 우승자 이현구(16기)는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2015년 우승자 박용범(18기)은 왕중왕전을 앞두고 나차, 실격을 당하면서 불참했다. 2018년

그랑프리 챔피언 정종진이 이번에는 왕중왕전 징크스를 깰지 관심이 높다.

●아직까지 왕중왕전 3연패는 없었다

왕중왕전에 유독 강한 선수들이 있다. 김동관(13기)은 2013~2014년 2년 연속 왕중왕전을 품에 안았고, 정종진도 2015~2016년 왕중왕전 2연패를 발판삼아 그랑프리 우승 이후 왕중왕전 징크스에 시달리자, 2017~2018년에는 정하늘이 깜짝 스타로 떠오르며 2연패를 달성했다.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왕중왕전 3연패를 정하늘이 성공할 수 있을지 흥미롭다.

●범 수도권의 9년 연속 우승 가능할까

‘정종진의 시대’가 오기 전인 2015년까지는 송경방, 이명현, 박병하(당시 김해팀), 이현구, 박용범이 차례로 그랑프리를 제패하며 광주·김해팀이 특선급을 주름 잡았다. 그러나 이 때도 유독 왕중왕전 만큼은 범 수도권 선수들의 잔치였다. 2011년부터 8년 동안 최순영(13기), 전영규(17기), 김동관, 정종진, 정하늘 5명이 왕중왕전 트로피를 번갈아가며 들어올렸고, 2015년 정종진-이현구(쌍승 56.9배), 2017년 정하늘-성낙송(쌍승 127.9배), 2018년 정하늘-정재완(쌍승 146.4배) 등의 이변도 발생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경륜·경정

13

2019년 6월 19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네팔 휴먼스쿨에 스포츠용품 전달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11일부터 14일까지 네팔 휴먼스쿨 4개교를 방문해 1000만 원 상당(학교당 250만 원)의 스포츠용품을 전달했다. 엄홍길 휴먼재단과 함께 하는 ‘네팔 휴먼스쿨 스포츠지원 사업’으로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축구, 농구, 배구 등 구기종목과 배드민턴 용품을 전달했다. 네팔 휴먼스쿨은 2008년 설립한 엄홍길 휴먼재단이 2010년부터 지원하는 교육 사업으로 네팔 오지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현재 15개의 휴먼스쿨과 1개의 병원을 완공했으며, 2개의 휴먼스쿨은 건립 중에 있다.

경정 등급조정 코앞 “절대 주선보류만은…”

주선보류 누적 3회시 강제로 은퇴 위기 선수 집중 UP…이변 가능성

경정이 7월 11일까지의 성적을 바탕으로 전반기 등급 조정에 들어간다. 승급과 강급 보다는 매 분기 어떤 선수가 주선보류를 받을지가 더 주목받는다.

주선보류는 출발위반 누적과 성적 미달로 당할 수 있고, 총 3회면 은퇴를 하게 돼 선수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다. 평균 득점이 주선보류 커트라인 아래에 위치한 선수들은 남은 경주에서 무조건 성적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번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전반기 마감까지는 이제 3주 정도의 시간이 있다. 출주횟수가 많이 남아 있다면

마감일까지 연속 출전에 탈출구를 찾을 수 있겠지만, 출주횟수에 여유가 없는 선수들은 경주마다 집중력을 최대치로 끌어 올려야 한다.

선수들의 상황이 각자 다르다 보니 미리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20회 차 강창효, 임정택, 이승일이 대표적이다. 입소할 때까지만 해도 평균득점 3.63이었던 강창효는 1일차 3경주 인빠지기로 우승을 꿰찼고, 이어진 11경주에서도 2위를 기록했다. 2일차 8경주에서 4착을 기록해 단숨에 평균득점을 4.03으로 안정권까지 끌어 올렸다.

임정택은 13회 차에서 플라잉을 범해 현재 주선보류 2회와 2021년 4월까지 출발위반 제재기간을 안고 가야한다. 벌어놓은 평균득점이 3.20으로 이대로 가면 은퇴까

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20회에서 2착 1회와 3착 2회를 거뒀 현재 평균득점이 3.65다. 일단 급한 불은 꺾지만 확실하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좀 더 입상이 필요하다. 이승일도 평균득점 3.59로 불안했던 점수였으나 20회 차에 2, 4착을 거두면서 평균득점 3.74로 위험 부담을 줄이는데 성공했다.

현재 성적 하위 5%(6명)에 걸린 선수는 김재윤, 김도환, 김희영, 이웅석, 정인교, 김대선이다. 홍기철, 김기한, 이진휘, 황만주, 박준호 역시 위험하다. 출발위반 누적 2회로 후반기에 주선보류를 확정지은 선수는 박민영, 우진수, 하서우, 한성근, 한준희, 이창규다.

주선보류 대상은 14기와 막내 15기를 제외한 13기까지다. 기준은 평균 사고점 1.20 이상과 평균 사고점 3경기 연속 0.80 이상이다. 경륜경정총괄본부는 6반기(3년)내 A급(A1,A2)에 4회 진입하면 성적으로 인한

주선보류를 1회 소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폐속정’ 임병준 예상분석 전문가는 “등급 조정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주선보류 위기 선수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 200% 이상의 승부 의지를 발휘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정용운 기자



찾아가는 도박중독 예방교육 캠페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사업 건전화를 위해 13~14일 장안·중랑지점에서 ‘찾아가는 희망길벗과 도박중독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시행했다. 희망길벗이 설치되지 않은 지점에 도박중독 전문상담사가 직접 찾아가 도박중독 자가진단테스트를 실시했다. 1대1 현장상담을 통해 경륜경정 고객들의 과도몰입 예방 및 중독 치유 활동 내실화를 위해 마련됐다. 연말까지 16회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박중독 예방교육과 캠페인도 각각 16, 18회씩 진행한다. 희망자는 전화(경륜 080-646-5000, 경정 031-790-8888)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용운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교육·퍼즐

에듀윌

‘핵심 개념서’ 매일 선착순 200명 무료 배포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공인중개사 첫 준비…‘압축 개념’으로 빠르게 파악하라

최근 부동산 중개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들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보조원들을 단순 사무보조 역할만 하도록 하고, 중개보조도 별도로 자격화하는 등 대대적인 입법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중개보조원’ 자격화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입법연구용역을 대한부동산학회에 발의했다.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는 중개보조원들이 중개영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공인중개사 업계의 신뢰도를 낮추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자체들도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보탰다. 최근 각 지자체는 중개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부적격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선보이고 있다.

이처럼 근래 들어 중개업종에 종사하기 위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



양한 학습 과정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다.

에듀윌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처음 도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압축된 핵심 개념만 담은 ‘공인중개사 핵심 개념서’를 매일 선착순 200명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10개년 기출 포인트만 모은 해당 교재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필수 개념 학습으로 빠르게 중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에듀윌 관계자는 “과목별 핵심 키워드를 한 번에 정리해, 압축된 공인중개사 기초 개념과 학습 노하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교재”라고 평했다.

다. 이에 보다 많은 수험생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다

■ 스도쿠문제

	6	9				7		
				9		7	8	4
8	7			5				3
	4			9				5
		6	2		3	4		
	9			1			7	
7				8				4
9		5	3		6			
		4				5	3	

			7				9		
2			1		4			5	
5	9			6			8	4	
		6		3		4			
3			9		7			6	
		5		2		1			
6	5			7				4	1
1			2		5			8	
		2				5			

■ 스도쿠정답

7	8	5	6	1	2	7	4	8	9
8	6	9	5	4	3	2	9	1	7
1	4	2	8	7	3	5	6	9	8
3	7	1	9	2	4	5	8	6	3
9	2	8	7	5	6	4	1	3	2
6	5	4	1	3	8	9	2	7	5
4	8	3	2	9	7	1	6	5	9
5	9	6	4	7	8	3	5	1	2
2	1	6	3	8	5	7	4	6	9

6	8	5	1	2	7	7	4	8	9
7	8	2	9	4	3	5	6	1	9
9	4	1	6	8	5	8	2	7	3
2	7	9	5	1	4	4	8	6	3
8	6	4	3	7	2	9	5	1	6
1	5	3	8	6	9	7	2	4	8
3	9	6	4	5	1	2	7	8	5
4	2	8	7	9	6	1	3	9	4
5	1	7	2	3	8	6	9	4	7